

Griffith University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I. 들어가며

이번 2024년 1학기는 나의 대학생활 꿈 중 하나였던 교환학생을 이뤘던 학기였다. 학기를 그대로 다녔다면 이미 졸업하고 남았을 시기이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던 경험이었기에 막학기에 호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다. 그렇기에 더욱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배우고 즐기려 했던 것 같다. 새로운 문화와 타국에서 살아보고 싶었고, 홀로서기를 해보고 싶었고, 언어를 배워보고 싶었다. 그렇게 교환학생 선발이 된 후 출국 출국 준비를 하고 호주로 떠나게 되었다.

II. 본론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교환학생으로 선정되고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비자발급이었다. 비자 발급이 원활하게 되어야 교환학생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다. 비자는 직접 신청해야하며, 인터넷에 잘 나와있어 혼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다. 비자 승인을 받은 후 항공권 구매와 보험도 순서대로 진행했다. 학교에서 연결해주신 교환학생 프로그램 담당자분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확인을 해주시는 정도이며 출국 관련된 준비는 개인이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어느정도 출국 준비와 관련 서류 등 행정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출국 준비를 시작한다. 필요물품은 조금씩 구매해서 준비해두었고, 짐은 최소화하고자 꼭 필요한 물품을 중심으로 짐을 꾸렸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파견 국가는 호주로, 퀸즐랜드주에 있는 브리즈번 Griffith University 캠퍼스에서 어학 수업을 수강했다. 호주는 날씨와 자연도 좋고 높은 임금과 복지 등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오는 나라 중 하나이다. 여기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빨리 빨리, 효율이 중요한 우리 문화와는 달리 여유와 미소였다. 버스를 탈 때 사람들은 항상 굿모닝하며 인사하고 내릴 때는 저 멀리서도 땡큐 하고 내리는 별 거 아닌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다. 또 보통 인도에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차는 잠시 멈추고 사람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해준다. 이런 문화에 나도 점점 익숙해지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가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지 않고 먼저 가라고 손짓하는 여유가 생긴 것 같다. 또한 호주 문화는 가족과 휴식을 중요하게 여겨 보통 직장인의 퇴근 시간은 오후 세시정도이다. 카페도 그즈음 대부분 문을 닫는다. 아침 생활이 습관화 되어있는 사람들이 많고, 날씨가 좋고 자연이 광활하다보니 넓은 공원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물가부분에서는 외식비용이 많이 비싸긴 하지만 식료품이나 과일 등 원재료 값이 싸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지는 않았고, 임금에 비해 저렴한 원자재 값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로도 호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Griffith University를 선택한 이유는 졸업 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교환학생 기회였고, 그렇기에 한학기 파견이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또한 취업을 위해 영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고 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어학과정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잘 맞는 그리피스 대학으로 파견을 결정하였다.

나-2. 공항 - 학교

공항에서 학교나 숙소로 가는 길은 거리가 꽤 된다. 버스나 트레인을 타고 가는 방법이 있지만 많은 짐을 들고 처음 현지에 도착해서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우버를 불러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어학과정이었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 입학 전 간단한 레벨테스트를 통해 반을 배정받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영어 수업을 수강했다. 수업에서는 리딩, 리스닝, 문법, 단어 등을 배웠고 다른 국가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다. 모두가 다른 언어의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모여 영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영어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쉐어룸 등)

어학과정 교환학생은 홈스테이 생활을 했다. 우리나라와는 문화가 다른 국가에서의 홈스테이 생활은 낯선 것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다만 에이전트에서 연결해주는 홈스테이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홈스테이 컨디션 격차가 커 운이 북북북일 수 있다는 점과, 기숙사나 개인이 알아보는 쉐어하우스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나-5. 교내·외 활동

매주 목요일은 교내에서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 활동을 진행했다. 피자파티, 보드게임, 카페 체험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고 참여를 원하면 사전에 신청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다른 반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친해지며 영어 실력도 쌓을 수 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많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짧은 교환학생 기간 동안 최대한 즐기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호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시티의 볼거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도시를 여행하며 호주의 여러 특징을 즐기고 오기를 추천한다.

3. 여행 정보

나는 학기 중 브리즈번 캠퍼스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렇기에 브리즈번안에서 여행을 가장 많이했다. 론파인 코알라 보호구역, 브리즈번 박물관과 미술관, 무게라 별빛 투어, 잇스트리트 등 많은 관광지와 여행지를 방문했다. 학기 중에는 가까운 골드코스트, 학기를 마치고 나서는 시드니, 멜버른을 여행했다.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는 잔잔한 도시의 느낌이었다면, 시드니는 현대적인 도시, 멜버른은 유럽풍의 도시로 같은 나라 안에서도 도시별 느낌이 달라서 새로웠다. 여행 중 날씨도 도시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도시를 여행하고 느껴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제한적인 대학생활 안에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교환학생을 가는 만큼, 최대한 많이 참여하고 즐기다 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다면 그대로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삶에 대한 에너지를 얻어 오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최선을 다하면 모두 경험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